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고려와 조선의 문장론



권오신
칼럼니스트, 은곡서원위원장

고려와 조선에서 출세길은 문장력이었다. 특히 조선에 들어서는 문장으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었다. 문장가의 왕국이어서 진사(進士)와 생원(生員) 대과(大科)는 암기력을 바탕으로 같은 문장력이 입격(入格)의 최대 공점이었다. 지금도 암기력이 좋은 이를 보면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크게 출세할 사람이라고 한다. 고려는 호족이 지배하긴 했으나 관료로 성장하려면 그 역시 화려한 문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금상첨화였다. 고려는 문체의 변화가 느리긴 했었지만 깊이와 문체가 동반했었다. 문장의 길이가 길긴 했으나 빠져드는 맛이 일품이라고들 했다. 여말(麗末) 조선초기 양촌 권근(權近, 1352~1409)이 지은 책 입학도설(入學圖說: 성리학 원리를 그림을 넣어 설명한 책)이나 응제시(應製詩, 명명 태조의 명을 받고 지은 시詩)에서 고려말 문체를 엿볼 수 있다. 조선에 들어서는 변화 속도가 붙었다. 시대마다 문장력 구성이 개성이 담기고 진리로 향한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지역마다 생긴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가속도를 끌어 올렸다. 고유문(告由文)이나 제문은 짧은 문장의 간결체지만 모든 내용을 품었다. 고려의 사료보다 조선은 풍부하다. 작가의 집으로 지목되지 않는 한 그대로 전해져 문장력과 그 변화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조선의 팔대 문장가(文章家)였던 아계(鵜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는 7살 때부터 시(詩)를 지어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명종 16년(1561) 문과에 급제, 대사간. 도승지 이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52세에 영의정에 올랐다. 아계(鵜溪) 이산해(李山海)보다 10년 일찍 태어나 명종(明宗) 8년 대과에 급제, 예조 병조 정랑과 합천 영천군수, 병마절제사를 지낸 귀봉(龜峯) 권덕

린(權德麟, 1529~1573)의 유집 귀봉집(龜峯集) 서문(鵝溪遺集)에 실린 아계 글 역시 간결한 문체로 급제 선배의 학문, 인품, 이승에서 헤어진 아픔을 명문장으로 남겼다. 아계(鵜溪) 유집엔 800수가 넘는 시(詩)가 실렸다. 조선엔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아 웬만한 글솜씨로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한다. 경상도 장기에서 100일간 귀양살이를 한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강진으로 이배되기까지 여러 수의 시와 일기를 남겼다. 배소 주변에 살았던 장기 사람들이 글 잘하는 귀한 선비에게 아첨지녀으로 도다리속국을 올렸는데 비린내나는 도다리국이 서민들은 잘 넘기지 못한 귀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강진 초당에 가서야 알았다고 현실감과 감성이 듬뿍 들어간 문체로 첫 유배지에서 느낀 심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실학자로서의 깊은 실력과 위엄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문장은 늘 흐른다. 지금은 가속도가 더 붙어 30년 변화 주기는 멀리 간 느낌이다. 그만큼 속도가 붙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도 더디긴 했으나 바뀌었다. 보편적 가치와 우정, 진리를 탐구했던 생각들이 잘 표현한 문장가는 집현전 학사였던 사육신 박팽년(朴彭年, 1417~1456)과 문장, 역사에 뛰어났던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낸 “점필재문집”이 사례다. 박팽년의 언행은 문장이 이상으로 돋보였다고 전해진다. 17세기를 살았던 허균(許筠 1569~1618)의 개성은 홍길동전에서 잘 나타난다. 17세기의 새로운 문체 주인공은 허균(許筠)이다. 허균은 어떤 글이든 그가 갖는 독특한 문장 체취가 강하게 느껴졌다. 18세기에 들어서는 성리학적 문장 흐름과는 전혀 다른 문장도 등장했다. 그 예로 실학자 이익은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성향의 글이었다. 19세기 후반엔 기 철학론과 기 우위론을 외친 근대 지식인을 담은 최한기(崔漢綺, 1803~1879)기가 등장,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과학적 관찰을 강조한 새로운 글쓰기였는데 시대가 흐르듯 문장가의 글도 바뀌는 것이다. 조선 후기를 살았던 개화사상가 연암 박규수(朴

珪壽 1807~1877)의 문장은 사실적 면이 강했다. 문학, 철학, 역사에 해박한 지식, 푹 떨어지는 문장력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가슴을 떨리게 한다. 반면 기묘사화의 주인공 남곤은 글은 뛰어나으나 품행 또는 인격에 결함이 있어 후세에 문장가로 덜 알려졌다. 오해를 받은 문장가들도 있었다. 허균(許筠)이 그렇고 朝鮮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鄭道傳)도 그런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에게 책만 읽는 바보로 잘 알려진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평생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만큼 간결한 문체로 심장을 파고드는 글체를 남겼다. 이덕무(李德懋)의 손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도 할아버지처럼 책을 사랑하고 평생 저술에 힘썼으며 19세기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叢稿)”를 남겼다. 문장가는 역사적 위인이기도 했고 박식했다. 명문장가는 개성적 문체를 가졌고 간결한 문체를 선호했다. 읽는 독자의 지루감을 없애기 위해 웃기는 문장 또는 풍부한 감정 묘사를 즐겨썼다. 이런 문장에다 개성이 강한 문체이었다면 더 좋았다. 조선 후기 금석학자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도 이어지는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의 금석문 해석학자들이 남긴 역사적 공헌도 역시 무척 깊다. 깊은 학문적 지식 문장론이 남긴 문화유산들이 우리의 문화, 국격을 높이는 최대 유산이다. 좋은 문장은 글쓴이의 사유가 깃든 글이어야 하며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가 느껴지는 글, 문장에다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수용하는 글이다. 20살이 되기 전 우왕(禔王)이 지켜보는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러말(麗末)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 종삼품從三品)이셨던 송고공(松阜公, 권조權輔)은 1392년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恭讓王)이 임금 자리를 조선에 넘기던 날 <신기기가 아배당둔神器既移 我輩當遷, 임금의 자리가 옮겨갔으니 마땅히 은둔할 뿐이다>, 시(詩)같은 이 한문장을 남기고 경상도 예천 땅 피아골에서 은둔을 선택했다. 고려말의 역성혁명을 맞이했던 그 참담한 현실을 여덟자(八字) 짧은 한문장으로 표현했다.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화수가 <4>

인생세간(人生世間) 우리들이 천성이륜(天性彝倫) 타고나서 효우둔목(孝友敦睦) 행신(行身)이요 예의염치(禮義廉恥) 처사(處事)로다 언어수작 삼가며 행동거지(行動舉止) 조심하여 선(善)한 사람 뵈을받고 불선(不善)함을 효유(曉諭)하세 회홍천지(恢弘天地) 이세상(世上)에 넓은사람 넓게살고 좁은사람 좁게사세 풍진세(風塵世)에 탁(濁)한마음 세심대(洗心臺)에 씻어두고 우수심(憂愁心)에 싸인얼굴 화용(花容)으로 웃고와서 백천동류(百川東流) 흐르난물 조종우해(朝宗于海) 하난다시 천지만(千枝萬)타 맺은꽃이 일색(一色)으로 피어난다 세세년년(世世年年) 모인곳에 화수단락(花樹團樂) 승사(勝事)로다 서천윤지(紱天倫之) 락사(樂事)하니 이태백(李太白)의 도리원(桃李園)가 열친척지(悅親戚之) 정화(情話)하니 도정절(陶靖節)의 오류촌(五柳村)가 오중종족(吳中宗族) 의전택(義田宅)에 범문정공(范文定公) 목족(睦族)인가 풍호무우(風乎舞雩) 욱호기(浴乎沂)는 공부자(孔夫子)의 도심(道心)이요 방화수류(訪花隨柳) 과전천(過前川)은 주부자(朱夫子)의 춘일(春日)이요 풍호욕호(風乎浴乎) 방화류(訪花柳)는 성현도심(成현도심) 오원(遠)하고 열친척(悅親戚)과 춘야연(春夜宴)은 고인풍류(古人風流) 어렵도다 연비려천(鸞飛戾天) 하늘높고 어약우연(魚躍于淵) 물도맑다 부찰양관(府察仰觀) 이우주(宇宙)에 나난것도 자득(自得)이요 뛰는것도 자득(自得)이라 자득기생(自得其生) 중생(衆生)들아 춘풍화기(春風和氣) 맞이하여 화간(花間)에 봉점무(蜂蝶舞)요 임간(林間)에 금조성(禽鳥聲)은 각자득의(各自得意) 가무(歌舞)로다 유인취귀(維人最貴) 오인(吾人)들은 예의동방(禮儀東方) 자라나서 이팔청춘(二八青春) 그시절(時節)에 삼춘가절(三春佳節) 맞이하여 무엇이 자득(自得)인가 탐진치(貪嗔치)에 삼악도(三惡道)를 불설(佛說)같이 해탈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중(四端中)에 어질인자(仁字) 어뜨시라 춘풍화기(春風和氣) 운(運)을받아 함양중화(涵養中和) 놀아보세 (끝) 권행완 편집국장

태사문학회 제5집 원고 모집

안동 권씨 문인들의 태사문학회(太師文學會)가 발족된 지 다섯 해를 맞았다. <안동권씨 대종회>의 응원과 축진 문인들의 참여로 지난 4월에 제4집을 발간하여 빛나는 전통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이어갈 제5집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축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태사문학회는 지난 2022년 4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같은 성씨의 문학회로 구성되어, 안동권씨 문중의 자랑과 긍지를 안고 태동한 문인 단체이다. 회원 50여 명으로 4회째 문학지를 발행하여 흠어져 살고 있는 족친끼리의 정신문화를 통한 결속과 우정을 다지고 있다. 100만 안동권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안동권씨 성화보’(1476년, 성종 7)를 간행하였기도 하지만, 안동권씨 현대 문학인들이 모여 해마다 출간하고 있는 태사문학지 또한 문화사적 큰 의미와 함께 후대에 길이 빛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사문학 제4집 <구슬비> 출판기념회

- 아 래 -

- 1. 원고 내용 : 시, 시조, 동시 등 2~3편(장시 제외) / 수필, 단편소설, 동화 등 1편(A4 3쪽 이내), 약력(등단년도 등단지를 포함한 문단 경력 중심, 3줄 이내) / JPG 프로필 사진(기준 사진 가능)
- 2. 원고 제출 기한 : 2026년 1월 15일(목)
- 3. 원고 보낼 곳(e-mail) : 편집국장 권순자 : 010-6201-4792 / lake479@hanmail.net
- 4. 연회비 및 계좌 : 40,000원, 우리은행 1002-963-051871 (권순자 태사문학회)
- 5. 기타
 - 원고 끝에 휴대폰 번호와 책 받을 주소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 원고료는 책 3권으로 대신하겠으며, 2026년 3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 모든 입력은 한초통바탕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책 이름 「, 잡지《》, 작품 및 논문 제목 「,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및 강조 “, 한자는 괄호 없이 2포인트 낮추어 병기.
 - 『태사문학』 5집 발간 후 출판기념 및 총회를 서울시 동대문구 안동권씨 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권종숙 부회장, 제1회 서울 <아모리 아트쇼> 초대개인전 전시회 개최

권종숙(별장공파 37세) 대종회 부회장이 제1회 서울 <아모리 아트쇼>에서 초대개인전 전시회를 가졌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아모리 아트쇼> 한국판 첫 전시회에 초대된 것이다. 돌변하는 세계사와 해개인 중심의 경쟁과 혼돈 속에서 청정하고 진실한 자존감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색채 혁명을 기획했다.

작가 개인의 DNA 속에 잠재된 재능의 색채마저 푹푹 털어 표출해버리는 식전 공연까지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4층) 전시관'에서 1주일간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4일 막을 내렸다. 이번 <아모리 아트쇼>에는 11명의 작가가 모두 개인전으로 초대되었다.



한국의 미-경희루



여인의 기도. 갯바위

권영숙 작가 개인전 《기억의 결》 전시회 개최

권영숙(북아공파 34세)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결> 전시회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6 마루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권영숙 작가의 <기억의 결>은 나무의 생명력과 인간과의 친화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로 자연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작품마다 생명력을 불어넣은 듯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구하며 나무와 형태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적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나무가 가진 고유의 시간성과 아름다움을 수채화라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자연을 사랑하여 가끔씩 산책하며 산과 예쁜 꽃, 계곡, 다 허물어진 폐가, 장작더미, 담배락이 무너진 기와집, 그리고 버려진 농기구 등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생명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으로 캔버스에 풀어 놓음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도 실제 자연의 한 모퉁이를 감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권영숙 작가는 2019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 신라미술대전 특선 등을 거쳐 2025 경상북도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경주수채화협회 등의 작가로 활동 중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